

주목! 이사람

김상렬 광주시의회장은 24일부터 25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열리는 광주교육전문가 아카데미 공동 워크숍에 참석한다.

강남경 농업협전남지역본부장은 24일 2016년도 제5차 임시대의원회에 참석한다.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4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우수 뮤지션 선발 오디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달 목포·순천서 예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수 뮤지션을 발굴하는 오디션이 열린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지역 우수 뮤지션을 선발하는 '전남대중음악의 힘! 할링뮤지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대중음악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창작지원으로 지역 음악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오디션은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9일 목포와 19일 순천에서 지역 예선이 두차례 진행되며 각 지역당 10팀씩 총 20팀이 결선무대에 오른다. 결선은 12월 23일 강진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최종 우수뮤지션으로 선발된 5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음반제작지원, 쇼케이스, 음악프로그램 및 공연 행사 등의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가수협회에 등록된 팀과 개인은 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악 장르에 관계없이 순수 창작곡과 기성곡 각 1곡씩 실연이 가능해야 한다. 주소지가 전남 또는 광주지역 참가팀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가를 원하는 자는 전남 음악 창작 소 홈페이지(http://ogamitong.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lamp-ent@daum.net)로 내달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음악작가소 운영사무국(061-333-8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www.jndn.com

전남농협 절임배추 인기

'금배추' 영향 주문 폭주...지난해 2천톤 판매 간편성·비용절감 호평...품질·위생 관리 철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전남지역 절임배추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상기온 영향으로 올해는 배춧값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 절임배추 판매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장을 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비용은 줄이고 간편하게 김장을 할 수 있는 절임배추를 구입하고 있다.

절임배추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 영향을 덜 받고 철저한 품질과 위생관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해 수요가 늘고 있다.

절임배추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전남지역 농협들은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김장이 시작되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임배추 주산지인 해남 화원농협은 지난주 평일 평균 50톤(5,000박스), 주말에 100톤(1만 박스)을 생산하고 있다.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수도권 지역으로만 500만톤(5만 박스)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원농협은 지난해 김장철에

절임배추를 2,000만톤(20만 박스) 판매했다. 이는 전국 절임배추의 70%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해남 화원농협 절임배추는 해남 배추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기본 3kg이상의 질 좋은 해남 배추를 신안 전일염으로 맛준 염도 10~12% 소금물에서 하루 동안 절인다. 잘 절여진 배추는 장흥 탐진탕 물로 4번 이상 헹구어 10kg으로 포장돼 출하되고 있다.

절임배추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치 양념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굴, 젓갈 등 취향에 따라 부재료로 첨가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5년 전만 해도 절임배추만 구입했지만 현재는 절임배추와 세트가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김장비용 절감을 위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인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해남 화원농협 절임배추 공장 절임동 모습.

채소수급안정자금과 신용카드 할인판매 등 프로모션 확대를 통해 절임배추와 부재료 판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김장철 배추 값 상승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절임배추를 구입하고 있다"며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부재료 등 김장재료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2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열린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임원철 기아차 광주지점실장,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이홍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대사,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 송희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후원회장, 박승원 기아차 광주지원사업담당.

"기아차가 어린이 소원 들어줍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연말 산타원정대 후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용)은 23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소중한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기아차 광주공장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기아차를 대표

해 김중용 광주공장장과 박승원 광주지원사업담당, 임원철 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김은영 광주지역본부장과, 이홍렬 홍보대사, 송희태 광주후원회장이 뜻 깊은 행사에 함께했다.

이번 전달된 후원금 4,000만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광주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평소 갖고 싶던 선물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며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의 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장차 우

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에도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이 합쳐진 기아헬린지 콘서트 사업을 발대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8,000만원 '문화예술교실'에 6,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후원했다. /서미애 기자

전남 남서부 9개 해상교량 내진성능 보강

익산국토청, 내년 3월까지 용역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소록대교와 고금대교 등 전남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9개 해상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익산국토청은 내년 3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마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9개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 남서부 지역은 2013년 12월 과거 소빙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하면서 지진구역이 II구역에서 I구역으로 확대 강화된 곳이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해상교량은 이전 지진 II구역의 요건에 맞게 내진설계가 반영돼 사용되거나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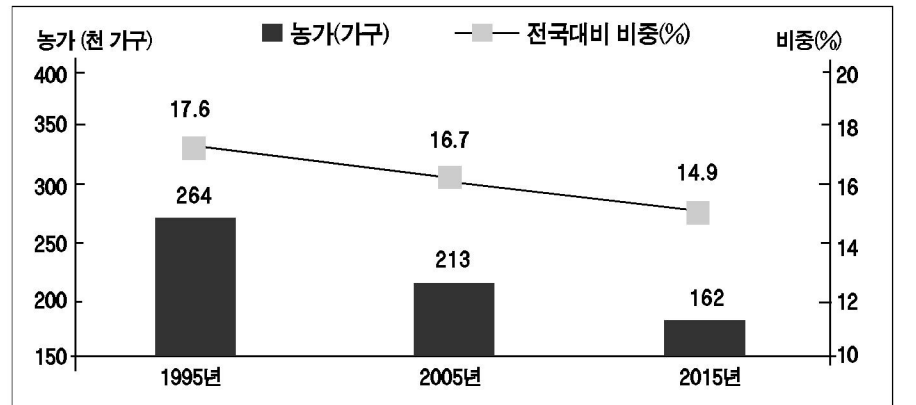
이다.

이번 상황론 내진 I 구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량반침 교체, 교대 및 교각 보강, 연단보강, 낙교방지시설 설치 등 각 교량에 맞는 내진보강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국준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용역에 이어 내년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들 9개 해상교량의 내진성능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라며 "호남지역 국토면 모든 해상교량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전남 농가수 현황



광주·전남 20년간 농가 38.5%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14% 증가

■호남동계청, 농업생산 변화상

지난 20년간 광주·전남 농가와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지난 20년간 농업 생산의 변화상' 분석 결과 전남지역 농가는 1995년 25만 1,914가구에서 2015년 15만 141가구로 20년간 39.5% 감소했다.

농가인구는 전남은 1995년 74만 8,436명에서 2015년 31만 8,848명으로 57.4% 급감했다. 광주는 1995년 4만 2,464명에서 2015년 3만 746명으로 27.6% 줄었다. 농업인구는 농업에 수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으로 농촌에 살지만, 농업 외 일에 종사하는 인구를 포함한 농촌인구는 구별된다. 이는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노인들이 지키고 있다. 전남지역 65세 이상 농업인구는

1995년 13만 1,166명에서 2015년 14만 6,482명으로 11.7% 급증했다. 광주지역 65세 이상 농업인구는 1995년 6,548명에서 2015년 9,695명으로 늘었다.

경지면적은 1995년 34만 9,008ha에서 2015년 31만 5,062ha로 줄었다. 논 면적은 20년 동안 16.3%(3만 7,473ha) 감소했지만 밭 면적은 2.9%(3,525ha) 늘었다.

전남 경지면적은 2015년 33만 4,255ha에서 1995년 30만 4,799ha로 20년 전보다 8.8%(2만 9,456ha) 감소했다. 광주지역은 1995년 1만 4,753ha에서 2015년 1만 261ha로 18.0%(4,492ha) 줄었다.

전남지역 논 면적은 1995년 21만 8,348ha에서 2015년 18만 5,190ha로 15.2%(3만 3,158ha) 줄었다. 광주지역은 1995년 1만 930ha에서 2015년 6,615ha로 39.5%(4,315ha)로 급감했다.

논벼 재배면적은 2015년 17만 4,392ha로 20년 전보다 13.3%(2만 6,752ha) 감소했다. 논벼 생산량은 2015년 89만 332t으로 20년 전보다 2.0%(1만 7,876t) 줄었다. /황애란 기자

광주지역 기업인 대상 청탁금지법 설명회

한전KDN은 지난 22일 광주과학기술원 최고경영자과정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해 호응을 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역 기업인들의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사로 나선 한전KDN 윤복한 감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청탁금지법 안에서 경영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appy Together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유저녀 생활자금 부양자 대출
노후부 피부양 보조금 지원
유저녀 자립지원금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또는 지원사업카페 "TS사랑나눔"(http://cafe.daum.net/ts2020)에서 확인하세요.

오천만의 교통안전 행복한 대한민국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Table with 3 columns: 지원대상 (Support Recipient), 지원구분 (Support Category), 지원금액 (Support Amount). Rows include 중증후유장애인 (Severe After-effects), 피부양노부모 (Dependent Elderly), and 피해가정의 유자녀 (Children of Victims).

◎ 정서적 지원

▶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가정을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유저녀 등-하계 캠프 운영
유저녀 멘토링 서비스
심리안정 지원사업
피해가정 주기 편의성 개선 지원
(주)만도의 함께 하는 전통(일반)축제 지원사업

◎ 신청서류 접수

- 접수처: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 신청기간: 연중 수시(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상반기 3월~4월 하반기 9월~10월)

